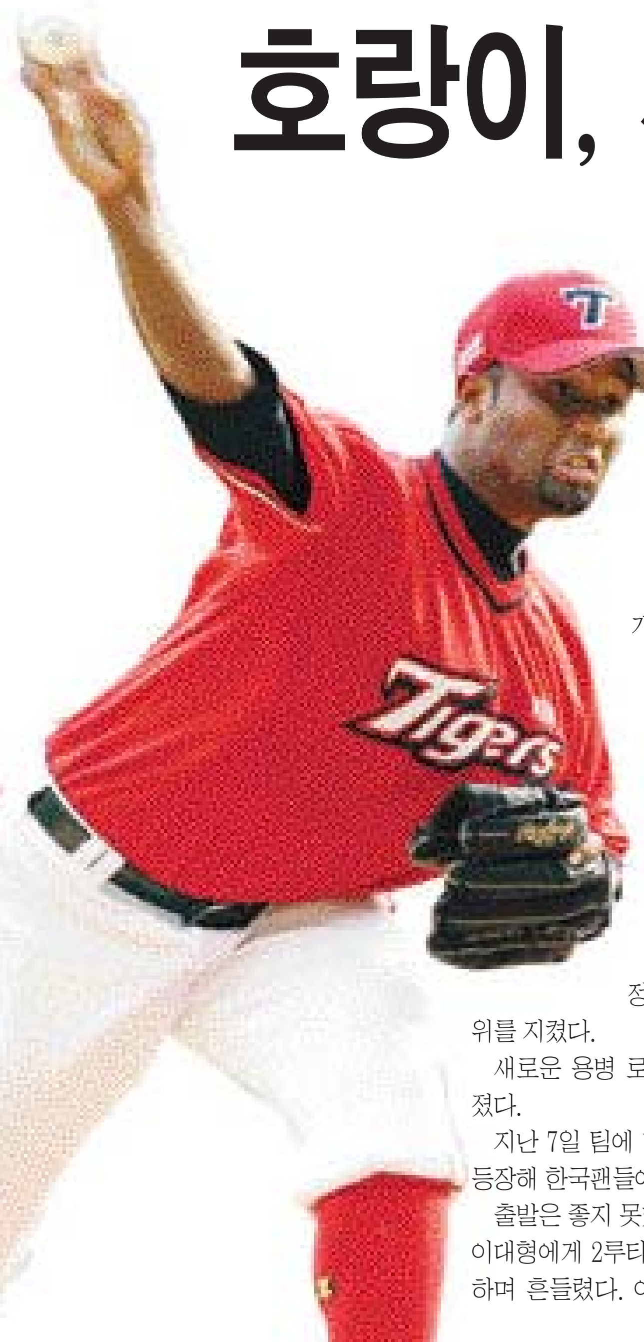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호랑이, 새 용병 콜론 성공 데뷔



한국무대 첫 등판 3이닝 1실점 합격투

LG에 3대4 역전패… 5연승서 ‘스톱’

6연승에 아웃카운트 두 개가 부족했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5차전에서 9회말 조인성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며 3-4로 패배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중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싹쓸이 3연승을 거뒀던 KIA는 잠실 원정에서도 2승을 추가하며 4위를 지켰다.

새로운 용병 로만 콜론의 데뷔전이 펼쳐졌다.

지난 7일 팀에 합류한 콜론은 9일 선발로 등장해 한국팬들에 첫 선을 보였다.

출발은 좋지 못했다. 콜론은 1회 선두타자 이대형에게 2루타를 맞은 뒤 보크까지 허용하며 흔들렸다. 이병규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박용택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다.

하지만 추가 실점 없이 1회를 마무리 한 콜론은 3회까지 11타자를 상대해 2피안타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마운드를 박경태에게 넘겨줬다.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한 콜론의 최고 구속은 149㎞를 기록했다.

1회말 먼저 1점을 내준 KIA가 2회초 곧바로 반격에 들어갔다.

김원섭의 땅볼을 처리하던 3루수 김태완이 공을 놓치면서 2사 1루, 지난해 김상현과 함께 KIA로 트레이드 되어 온 박기남이 친정팀 LG를 상대로 승부를 뒤집은 한방을 선보였다.

박기남은 LG 선발 봉중근의 직구를 잡아당겨 자신의 시즌 1호이자 통산 9번째 홈런을 터트렸다. 지난 2006년 9월 3일 이후 4년만에 기록한 홈런이었다.

1점차 박빙의 리드가 이어지던 3회초 ‘아기 호랑이’ 안치홍이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3루타를 터트리며 3-1을 만들었다.

초반 공방전 이후 경기는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갔다.

KIA의 두 번째 투수 박경태가 2와 3분의 2이닝 동안 하나의 사사구 없이 피안타 하나를 기록하며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7회말 무사 1·2루의 위기 상황에 등판한 손영민은 병살타로 두 개의 아웃 카운트를 잡은 뒤 오지환을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며 2점차 리드를 지켰다. 하지만 9회말 마지막 위기를 넘지 못했다.

투수 곽정철이 세 타자에게 연속해서 안타를 맞으며 3-2가 됐다. 이어진 무사 1·2루 상황에서 마무리 유동훈이 출격했다.

손인호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조인성의 타구가 2루수 안치홍 옆을 빠지면서 동점주자에 이어 역전주자가 들어와 경기는 3-4 재역전패로 끝났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도 홈런 쳤어요”

9일 오후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2010 프로야구 LG와 기아의 경기 2회초 타석에 들어선 기아 박기남이 2점 홈런을 친 후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KIA 이모저모

이종범 역시 만형… 팀 통산 3만 안타 주인공

삼성·두산·LG이어 4번째

○…KIA 타이거즈의 이종범이 팀 3만 안타의 주인공이 됐다.

이종범은 지난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4차전 4회 무사 1루에서 상대 투수 김광삼을 상대로 좌전안타를 뽑아내며 팀 통산 3만 안타를 채웠다.

KIA는 이날 이종범의 안타로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3만 안타를 채운 삼성과 올 시즌 기록을 달성한 두산·LG에 이어 역대 4번째로 3만 안타 고지에 오른 팀이 됐다.

윤석민 마무리 자청 ‘세이브’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윤석민이 깜짝 세이브를 기록했다.

윤석민은 지난 8일 LG와의 4차전에서 6-4로 앞선 9회말 김희걸에 이어 마무리로 등판, 실점없이 경기를 마무리하며 시즌 첫 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날 등판은 오는 11일 넥센과의 홈경기 선발로 내정된 윤석민이 “불펜 피칭을 하지 못한 만큼 경기에 나가 2이닝 가량을 소화하고 싶다”고 등판을 자원해 이뤄졌다.

조범현 감독은 9일 경기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윤석민 마무리 등판 배경을 설명하면서 “손영민과 유동훈이 등판조가 아니었고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와 기용했다”며 “앞으로는 불펜피칭 대신 일요일 경기에서 몸을 풀게 하고 화요일 선발 등판을 시키면 되겠다”는 농담으로 이날 결과에 대해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연듯빛 매니큐어는 행운

○…주장 김상훈의 활약이 화제가 됐다.

7일 마수걸이 홈런으로 올 시즌 네 번째 결승타를 기록했던 김상훈은 지난 8일에는 만루홈런을 쏘아올리며 팀 5연승의 발판을 놨다.

9일 경기에 앞서 LG 박용택은 김상훈에게 “투수들이 공을 던질 곳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살살 해주라”고 애교 섞인 부탁을 하기도 했다.

자신의 맹활약속에 팀이 연승행진을 하면서 김상훈의 연듯빛 매니큐어 패션도 계속 됐다. 사인 교환 때 투수들이 사인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흰색 매니큐어를 칠해왔던 김상훈은 얼마전 유니폼 색과 같은 흰색 대신 연듯빛 매니큐어를 칠했다. 승리의 기운을 이어받기 위해 ‘이긴 경기에서는 매니큐어를 지우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상훈은 팀의 패배로 매니큐어 색깔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병규, KIA덕아웃 급습(?)

○…LG의 이병규가 KIA 덕아웃을 급습했다. 최근 극심한 부진으로 ‘작은’ 이병규에게 외야 자리를 내준 ‘적토마’ 이병규가 9일 경기에 앞서 3루 덕아웃을 찾아 이용규의 배트 가방을 찾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타격 연습중이던 이용규의 가방에서 새 배트를 빼어든 이병규는 “이용규에게 배트를 하나 가져가겠다고 했다”며 “타격감 좋은 선수의 배트를 수집하고 있다”고 3루 덕아웃을 찾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상무 홈 팬들에 ‘V선물’

■ K-리그 12라운드

김동현 결승골, 강원 꺾어…시즌 첫 홈 승리

전남은 성남에 0대 4 대패… 연승행진 좌절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강원 FC를 상대로 올 시즌 홈 첫 승을 신고했다.

상무는 9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0 K-리그 12라운드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김동현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를 거뒀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을 기록했던 상무는 ‘월드컵 방학’을 앞둔 전반기 최종전에서 홈 팬들에게 안방 첫 승리를 선물하며 승점 3점을 챙겼다.

최성국을 앞세운 상무가 총력전을 벌인 것 반해 강원은 공격의 핵심 정경호가 경고누적으로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다.

득점없이 0-0으로 전반을 마감한 양팀의 힘의 균형이 후반 8분 김동현의 골로 깨졌다.

문전에서 헤딩골을 시도했던 김동현이 골키퍼 손을 맞고 나온 공을 다시 한 번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팀의 결승골을 기록했다.

지난 울산과의 11라운드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장식했던 김동현은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3연승에 도전했던 전남 드래곤즈는 성남 일화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남은 8일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경기에서 0-4로 대패했다.

수원, 전북을 연달아 격파하고 2연승을 달렸던 전남은 전반 34분 라돈치치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이렇다할 공격력을 과시하지 못한 전남은 후반 9분 파브리시오, 후반 41분 김철호에게 연달아 골을 내준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 파브리시오에게 두 번째 골을 헌납하면서 0-4로 무릎을 꿇었다.

한편 12라운드 경기를 끝으로 두 달이 넘는 ‘월드컵 방학’에 들어가는 프로축구는 오는 7월17일 13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르헨 축구대표 메시 스페인리그서 32호 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B조에서 한국과 맞붙는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의 공격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정규리그 3경기 연속골(5골)을 뽑아냈다.

바르셀로나는 9일(한국시각) 새벽 스페인 세비야 ‘에스타디오 라몬 산체스 피스후안’에서 치러진 세비야와 2009~2010 프리메라리가 37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5분 만에 터진 메시의 선제골에 이어 보얀 키르키치와 페드로의 연속골이 터지며 3-2로 이겼다.

메시는 전반 5분 만에 맥스웰의 패스를 받아 정규리그 32호 골을 완성, 정규리그 1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동료인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27골)을 5골 차로 앞서며 사실상 정규리그 득점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물오른 추신수 3경기 연속 안타 작렬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3경기 연속 안타를 때렸지만 팀의 5연패를 막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9일(한국시각)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미국프로야구 홈경기에서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나서 2타수1안타를 때리고 볼넷 2개를 얻었다.

시즌 타율은 0.307에서 0.311(103타수32안타)로 약간 올랐다.

추신수는 3-6으로 다시 끌려가던 8회 선두 타자로 나와 깨끗한 중전 안타로 추격의 불을 댕겼다.

디트로이트의 강속구 투수 조엘 주마야의 시속 159㎞짜리 직구를 때려 5일 토론토와 경기부터 3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었다. 클리블랜드는 4-6으로 패해 5연패를 당했다. /연합뉴스

‘풍운아’ 김병현 美 독립리그서 뛴다

오렌지 카운티와 계약

‘풍운아’ 김병현(31)이 미국 야구 독립리그에서 재기를 노린다.

미국 독립리그인 골든베이스볼리그의 오렌지 카운티 플라이어스는 최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메이저리그에서 9년을 경험한 베테랑 마무리 투수 김병현과 계약했다.”고 전했다. 계약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2004년에 탄생한 골든베이스볼리그는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리그로 전성기가 지난 빅리거나 유망주들이 기량을 가다듬는 곳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투수 이라부 히데키를 비롯해 리키 헨더슨·호세 리마 등이 거쳐 갔다. 9년간 빅리그에서 올린 성적은 54승60패, 86세이브, 평균자책점은 4.42다. /연합뉴스